

- 주요 뉴스: 연준의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 재확인 정책기조 전환 기대 감소
 - IMF 총재, 경기침체 위험 등으로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 예상
 - 영란은행 부총재, 금융시장 위험 완화되면 시장개입 중단 가능
 - 골드만삭스, 금년 및 내년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 OPEC+의 공격적인 감산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0%],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작용
 유로 Stoxx600지수는 유틸리티 관련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9%,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9월 고용보고서 발표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407.7원, +5.3원) 0.4% 상승, 한국 CDS 상승

		10/6일	10/5일	전일대비			10/6일	10/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44.5	3,783.3	-1.02%	국채 금리 10y	미국	3.82%	3.75%	7bp
	유럽	396.35	398.91	-0.64%		독일	2.09%	2.03%	5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17%	4.04%	13bp
	일본	27,311	27,121	0.70%	CDS 5y	한국	56bp	55bp	1bp
	한국	2,237.9	2,215.2	1.02%		중국	101bp	98bp	3bp
환율	달러지수	112.24	111.21	0.93%	위험 지표	EMBI+	-	455	-
	유로화	0.9791	0.9884	-0.94%		VIX	30.52	28.55	6.90%
	엔화	145.14	144.64	-0.34%		WTI유	88.45	87.76	0.79%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344.6	350.1	-1.56%
	원화	1,402.4	1,410.1	0.55%		금	1,712.5	1,716.3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의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 재확인. 정책기조 전환 기대 감소

-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슈카리 총재는 최근 상황이 금리인상 중단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언급. 연준의 인플레이션 안정 임무가 종료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 한편 금리인상 중단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
-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는 내년 초 연방기금금리가 4.50%~4.7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다수의 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 이를 위해 당분간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연준의 쿡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물가안정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요구된다고 지적
- 한편 이날 공개된 9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9만건으로 전주비 2.9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 일부에서는 연준이 유도하고 있는 노동시장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통화긴축 속도 조절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허리케인 영향으로 일부 왜곡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경기침체 위험 등으로 내년 글로벌 성장을 전망의 하향 조정 예상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 기후 등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향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글로벌 경제는 경기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갈등 증대, 자연 재해 증가,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취약성이 심화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

■ ECB, 일부 위원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인상 주장. 경기악화 등을 반영

-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이 0.75%p를 주장했으나 일부는 0.50%p 인상을 지지. 이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독일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예상. 에너지 위기 등을 고려

- 관계자들은 에너지 부족, 물가 급등, 공급망 차질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금년 성장률 전망도 하향(2.2%→1.4%). 연간 물가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각각 7.9%, 8.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 영란은행 부총재, 금융시장 위험 완화되면 시장개입 중단 가능

- 컨리프 부총재는 금융시장 위험이 진정되었다고 판단하면 긴급 국채매입을 질서있고 점진적인 형태로 종료할 것이라고 발언. 국채매입 지속 여부는 국채매입 기간과 종료 이후의 시장 여건을 비교하여 결정된다고 첨언
- 하스켈 위원은 영란은행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통화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고 부연

■ 골드만삭스, 금년 및 내년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 OPEC+의 공격적인 감산 반영

- 만일 일일 200만배럴 감축 결정이 내년까지 지속되면, 금년과 내년 유가 전망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각각 99달러→104달러, 108달러→110달러). 현재 원유시장에서 유가 상승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재고, 저장 규모 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금리인상 경로를 강하게 지지

- 맥클렘 총재는 금리인상 경로를 지지한다고 발언. 이는 최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단기간 내 긴축조치 종료 기대를 낮추는 결과를 유도. 또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둔화되지만, 잠재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높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6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8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2.0%, 7월(-1.2%), 예상치(-1.7%)
- 독일 8월 공장수주(전월비): -2.4%, 7월(1.9%), 예상치(-0.7%)

■ 주요 경제 이벤트(10/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영란은행 람스덴 부총재 강연
- 미국 9월 고용보고서 및 8월 도매재고, 독일 8월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투자자, 금융 안정 위협하는 4가지 부문을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Four flashpoints that could threaten financial stability)

- 첫째, 개방형 펀드의 고수익을 노린 비유동성 자산 매입이 증가. 이러한 유동성 미스매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우려. 둘째, 은행들이 규제강화 등으로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감소. 아울러 중앙은행들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부족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셋째, 최근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6년 이후 최고 수준. 이에 주택가격 하락 및 모기지 증권이 변동성 확대가 가능. 넷째, 민간자본이 소유한 자산가치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정책기조 변경이 사모펀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위험 요인

■ 유럽 경제, 에너지 위기 또는 재정위기의 기로에 직면 - 블룸버그

(A European Crisis Is Coming. Which Kind Will It Be?)

-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이 GDP의 6~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럽은 재정위기를 감수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
-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고 민간부문이 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제조원가와 난방비 상승, 가처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며, 1979년과 같은 경기침체가 재현될 가능성
- 대안은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 부담을 늘려 지금도 위험한 상태인 재정위기 발생 확률을 더욱 높일 전망

■ 영국의 실수로 인한 금융 불안정,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소지 - Financial Times

(The destabilisation wrought by British errors will not be confined to Britain)

-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감세법이 잘못된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신뢰 부족, 레버리지가 결합된 악순환 고리(연기금의 대규모 국채매도) 등이 결합된 전형적인 퍼펙트 스톰의 모습이라고 지적
- 또한 과거 금융위기는 위험자산이 예상보다 더 위험해지는 것보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식되던 자산이 위험해질 때 오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영란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의 이행 기간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

■ 연준, 정책기조 선회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할 필요 - WSJ

(The Fed has to stay in the course against inflation)

- 최근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효과 시차, 불필요한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 강달러 및 고금리로 인한 여타 국가들의 혼란 등을 이유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고 완화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 그러나 이는 모두 정상화에 필요한 대가이며 ‘건조한 고용시장, 연준의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물가’는 긴축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반증.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전까지 정책 방향을 변경해서는 곤란한 상황

■ 중국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과거 위기 대처 경험 고려 시 낮은 편 - 블룸버그

(The China Bubble Is Losing Air But Won't Burst)

-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에 주목할 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성장을 훼손했지만, 의료자원과 인구 대비 희생자 수를 제한. 과거 부동산 문제도 개발자금 공급 조절 등으로 해결.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 축소를 달성할 가능성
- 또한 1990년대 시장개방, '00년대 WTO 가입 등은 정부가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다만 향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이는 세계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유도

■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연준의 정책 딜레마를 초래 - 블룸버그

(Treasures Liquidity Problem Exposes Fed to 'Biggest Nightmare')

■ 미국 노동시장, 비공식 코로나 19 감염 증가로 정확한 판단 어려울 소지 - WSJ

(For the Economy, Those Sick Days Are Still Adding Up)

■ OPEC+의 감산, 경기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파괴 등 역풍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The battle for control of the global oil market)

■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정책 변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제한 - 블룸버그

(This Imitation Currency Crisis Needs Wor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